

# 구한말 '동학농민군 함성' 장흥서 울려 퍼진다



## 내일 장흥읍 일원서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농민군 음식체험·판화전... '만세삼창' 애국정신 함양

구한말 동학농민군들의 투쟁 활동과 생활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장흥에서 열린다. 5일 장흥군에 따르면 7일 장흥군청과 장흥군민회관,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일원에서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전남도 기념식'을 개최한다.

전남도와 장흥군이 공동 주최하고 (사)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행사는 사전 프로그램으로 시작된다. 낮 12시부터 기념관 잔디광장에서는 동학농민군이 당시 즐겨 먹었던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와 장흥 동학농민혁명 주요 장면을 담은 판화 전시가 운영된다. 이어 오후 1시에는 100여명이 참여하는 동학 품목 길놀이와 펼쳐진다. 장흥군청에서 출발해 중앙로를 거쳐 장흥군민회관까지 이어지는 행진은 북소리와 함께 1894년 석대들을 울렸던 동학농민군의 함성을 재현하며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

킬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는 공식 기념식이 진행된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기념사업 경과보고, 폐정개혁 12개조 낭독, 기념사·축사 순으로 이어진다. 기념식 이후에는 주제 공연 '깃발에서 빛으로'가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석대들 전투와 패전 이후 덕도로 탈출하는 동학농민군의 서사를 중심으로, 동학 정신이 1919년 3·1운동으로 이어지고 오늘날까지 계승되는 역사적 흐름을 조명한다. 행사는 만세삼창으로 마무리되

며, 이후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에서 헌화와 분향·참배가 자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관계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국가 서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번 기념식이 동학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학 정신의 계승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장흥 키조개 및 일품이예요" 제23회 정남진 장흥 키조개축제가 5일까지 안양면 수문항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5일간 열린 축제에는 키조개 요리를 맛보려는 방문객들로 붐비, 장흥삼합을 비롯해 키조개 구이, 탕수육, 죽 등 다양한 먹거리가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제공=장흥군청

## 곡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 15일까지 수요조사 실시...에너지 자립률 향상 기대

곡성군은 탄소중립 실현과 군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수요조사를 오는 15일까지 실시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 공공, 상업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 지역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한다. 특히 이번 수요조사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를 늦게 접한 고령층, 취약계층 주민들이 신청 당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서둘러 방문해야 하는 큰 불편이 있었던 점을 보완했다.

배려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군은 주민들이 신청 당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기할 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누구나 기한 내에 신청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15일까지 건축지 소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건축물 대장 등을 제출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 지구가 많고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에 맞춰, 한 분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이번 배정제 실시를 위한 지방세 체납 여부, 지역 거주 여부, 에너지·사회적 취약가구 가점, 과거 신청 이력이 있는 가구에 대한

공정성 관례는 "에너지 취약 지구가 많고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에 맞춰, 한 분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이번 배정제 실시를 위한 지방세 체납 여부, 지역 거주 여부, 에너지·사회적 취약가구 가점, 과거 신청 이력이 있는 가구에 대한

## 고흥, '우주산업 핵심' 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속도

### 우주·항공 기업 대상 연구개발·지원사업 추진

고흥군이 우주발사체 국가산단단지의 조기 구축과 기업 유치를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나로우주센터 인근 152만661㎡(46만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이후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단지는 향후 발사체 기업 및 연관 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와 자립 기반 마련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근 우주발사체 핵심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흥군은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올

해부터 5년간 우주·항공 기업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기술개발 단계부터 시제품 제작, 성능 검증, 시장 진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입주 기업의 초기 정착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우주발사체 국가산단단지는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미래가 이

같은 핵심 인프라로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우주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우주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과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를 목표로 중앙부처,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 광양, 아이와 외식하기 편한 환경 조성

### '아동친화업소 존중 존' 참여업소 30곳 모집

광양시는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친화업소 존중 존' 참여업소를 모집한다. '아동친화업소 존중 존'은 아동 메뉴를 제공하는 외식업소를 아동친화업소로 지정하고, 유아의자와 아동 식기류 등 아동친화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지역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카페 등 외식업소 30개소이며, 이는 지난해 20개소에서 확대된 규모다. 주류, 안주류 중심 업소와 배달음식점은 제외되며, 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아동친화업소로 지정되면 업소당 30만 원 상당의 아동친화 물품이 지원된다. 지원 물품은 유아의자, 아동 식기류, 아동용 일회용품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광양시 아동보육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광양시 아동보육과(061-797-1955)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아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저출생 위기 극복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음식점 영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 순천, 50번 버스 노선 신설

### 트리마제 주민 이동 편의 향상

순천시는 트리마제 아파트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0번 버스 노선을 신설·운영에 들어갔다. 해당 지역은 기존 56번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나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으로 길어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인근 금당지구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이 커 노선 개선 요구가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운수업체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50번 노선을 신설하고, 배차간격을 약 30~40분으로 단축했다. 50번 노선은 트리마제 아파트를 기점으로 NC백화점,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 조례사거리, 금당지구 등 주요 생활권과 신중중, 팔마중, 왕의중 등 주요 학교를 연결해 특히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민 생활권과 학생 통학권을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선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 여수, 낭도서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섬박람회 홍보

### 박람회 붐업·탄소중립 실천...현장 참여 확산

여수시는 최근 낭도 일원에서 직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낭도 클린업 실천운동 및 섬박람회 붐업 챌린지'를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섬 환경 보전과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직원들은 낭도 해수욕장 일대를 중심으로 해안가에 밀려온 해양쓰레기와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며 대대적인 섬 청결활동을 펼쳤다. 특히 수거된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 배출해 자원순환 실천에도 힘을 보탰다. 이와 함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로 고승을 활용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며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섬박람회와 관련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솜씨를 통해 젊고 활기찬 홍보 콘텐츠 확산에도 나섰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섬 환경정비와 섬박람회 홍보, 에너지 절약 실천을 함께 추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여수시는 최근 낭도 일원에서 직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낭도 클린업 실천운동 및 섬박람회 붐업 챌린지'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여수시청

## 보성,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선정 '온힘'

### 지역 농협과 협약 체결...경제 선순환 기반 마련

보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선정을 목표로 지역 농협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섰다. 5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NH농협은 협동조합지부와 북부·회천·특량·별농협 등 4개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은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공모 지침상 요구되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 조건부 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 농협은 협약에 따라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하나로마트 수익 일부의 사회

적 기부·지역 환원,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로컬푸드 활성화, 면 단위 하나로마트 사용 한도(월 5만원) 준수 등에 협력한다. NH농협은행 보성군지부는 전용 카드 발급과 지급·정산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면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기본소득이 지역 사회에 환원되는 체계를 갖추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협약 체결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th66@gwangnam.co.kr